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이해

민경찬 연세대 입학관리처장

1.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주체가 고등학교, 공공기관, 대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입학전형에서의 비중이 이리저리 반복적으로 옮겨가며, 광복 이후 10여 차례 변천과정을 가져왔다.

1991년 4월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 보장이라는 3가지 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도입되어, 1994년부터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적인 선발방법 등 세 가지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입학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을 위한 구체적 변화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수능시험과 본고사에 의한 단순한 입시제도를 탈피하여 선발대상과 평가도구의 다양화, 과목별 가중치, 추천제, 가정환경 및 특성 배려 등 다양한 입학전형방법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다양한 재능과 속성을 갖

춘 학생집단을 구성하는 획기적인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안이 제시된 것으로 특히, 농·어촌 학생, 근로자, 격오지 근무자, 특기생 선발이 특별전형으로 포함되었다. 1995학년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특별전형, 1996학년도에는 지역할당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1997학년도에는 논술성적만으로도 선발과 면접시험의 점수화 등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대학들의 다양화와 특성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욱 다양한 전형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8학년도에 연세대학교는 정보특기자 전형에서 일정한 수준의 정보특기를 갖춘 학생은 학생부나 수능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일종의 예약입학제로서, 전공영역도 학생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8년 2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 위주로 정원의 10%를 선발하는 '조기선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대학들도 특수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교 재학중에 입학예약을 하는 '입학예약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7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전국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2000학년도부터 우수고교생 예약입학제를 도입하고 특기자나 소외학생들을 위한 무시험 전형인원을 정원의 20%~4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는 2002학년부터 고교장추천제 위주의 무시험제도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발표하여 무시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서울대의 무시험제도는 2002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80% 이상을 교장추천제로 선발하고 수능시험성적은 최저기준으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10월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확대 실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또한 초·중·고교의 「새 학교 문화창조」안을 발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평가 등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시험성적, 교과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품성과 인성, 특성과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크게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1994년부터 시작된 대입제도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왔고, 전형일정도 수시모집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1998년 매우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는 고도의 창의적 사고와 지적 자산이 기반이 되

는 21세기에는 교육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기본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교육개혁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입학과 관련된 초·중등교육의 왜곡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에 큰 비중을 두고, 우수학생의 개념을 시험성적, 교과성적 우수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특기, 품성, 장인정신, 개성, 소양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제외하고는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첫째, 특별전형의 확대이며, 둘째,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셋째, 전형일정의 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187개 대학의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의 분석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전형이 크게 확대됨을 볼 수 있다.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20~40%를 선발하는 대학이 46%이고, 41%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30% 정도 된다. 특별전형 유형은 1999학년도의 18종에서 2002학년도에는 100종

〈표〉 1999,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현황

		1999학년도	2000학년도
특별전형		126개대 15,407명	131개대 29,410명
고교장추천		77개대 7,928명	84개대 9,926명
농·어촌학생		169개대 9,855명	174개대 9,957명
수시모집	일정	9.1 ~ 11.21	9.1 ~ 11.21
	인원	83개대 7,985명	93개대 12,826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99. 5. 3.

으로 늘어났다. 전형유형의 성격은 특기자 등 개인의 특수한 능력, 농·어촌학생·소년·소녀가장 등 교육환경에 따른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직업군인자녀 등 부모 등에 의한 사회기여, 취업자 등 평생교육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추천제 전형의 유형도 현재 고교장 추천제와 일반 추천서를 점수화하는 형태에서 33가지의 추천형태로 확대되었다. 전형일정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고 1학기에 선발하는 대학은 32%에 이른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교과 전체를 반영하는 대학은 인문(사회)계 41개교(22%), 자연계 29개교(16%)이고, 교과 일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인문(사회)계 153개교(82%), 자연계 137개교(73%)이며, 반영비율은 3~100%로 다양하다.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166개교(89%)이고 그 반영비율은 2~50%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총점을 적용하는 대학이 92개교(49%), 영역별로 반영하는 대학이 117개교(63%)이고, 전형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대학자체 전형자료인 지필고사(논술 등)의 반영비율은 5~40%이며, 면접도 반영비율이 pass/fail, 5~50%로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전형자료는 인성·적성, 실기, 자기추천서, 지도력, 수상실적, 특기, 정보소양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추천서·학업계획서 등의 반영 대학도 87개교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방향을 다양화하고 모집단위별 특성을 강조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형요소와 선발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선발의 시기도 특차와 정시라는 경직된 구도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조기에 선발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생선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중 수시모집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평가=점수'라는 도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기회균등과 객관적 기준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고,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한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점수화해야만 했고, 교육내용 평가시에도 본래의 교육목표보다는 변별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까지도 따져봐야 하는 극단적으로 예민한 계산까지 해야 되고, 사회적인 인식도 유독 대입전형에서는 한 인간의 능력을 점수차에 따라 절대적으로 차별 평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입학제도의 평가에 관한 특징은 첫째,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함에 시험성적이나 교과성적 점수위주에서 특별활동, 봉사 등 비교과활동, 특기, 품성, 소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정한 범위내의 학생들은 동등한 잠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기준', '등급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셋째, 그 동안의 공정성·객관성 일변도의 가치에서 합리성·타당성·합목적성에 의한 학생선발로 평가의 개념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학생선발시 개인의 성취내용과 더불어 교육받은 환경이 평가요소로 도입되어 출신고교의 특성과 교육활동의 특징을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발기준의 개념도 대입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방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 모집단위별 특성, 고유한 목적에 따른 특별전형의 형태, 다단계 전형, 자격기준, 지역할당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선발기준도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3.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와 무시협전형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대입제도의 첫번째 기본원칙으로 "대입전형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학의 특성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한다."라고 제시하고, 이러한 전형수단의 하

나인 '무시험전형제도'의 도입·확산을 초·중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무시험제도'라는 용어는 우리 모두에게 적잖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무시험제도를 시험이 없는 제도라 하여 수능시험도 없고 논술고사도 없는, 공부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일부 대학의 책임자들조차 2002학년도 대입제도 = '무시험제도' 또는 '무시험 고교장 추천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무시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지라고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모든 대학들이 '무시험제도'를 선택한다면 또 다른 획일화가 이루어져 중대한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대학들은 무시험제도의 의미를, 대학에서의 지필고사는 없고 수능시험성적은 자격시험으로만 적용하는 것으로, 또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만 없다는 뜻으로, 또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비교과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 등으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시험제도는 학생의 특성, 재능, 소양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화, 특성화된 전형방법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무시험전형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철학과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입학제도로 '무시험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함에 따라 많은 부담과 문제점을 안고 왔기 때

문에 '무시험'이라는 용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시험'이라는 용어는 전형방법의 하나로 이해하고, 폭넓은 의미로서의 '무시험제도'라는 용어는 더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든지, 그 용어의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새 대입제도와 전형자료

200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활용되는 평가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개인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추천서, 특기 및 소양 등
- ② 고교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비교과내용), 고교의 특성과 교육활동의 특징
- ③ 공공기관 : 대학수학능력시험
- ④ 대학 : 논술고사, 면접·구술

지금부터 새 대입제도와 이 자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1) 고등학교 자료

가. 학교생활기록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영역만 반영하

는 등 대입전형에서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학생부에서 교과성적은 물론 특별활동, 특기, 경력, 품성 등 비교과내용의 기록도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특히 수행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부의 활용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교과성적이 단순한 중간·기말고사 점수에 의해 결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질적 평가인 수행평가는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 고도의 사고기능을 키우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자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나.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

고등학교별 설립목적과 특성,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 및 교육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고등학교가 본래의 교육목표에 충실하도록 하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최대도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고교 등급화 등 학력차 인정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

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들간의 차이를 단순한 고교등급제 또는 전국 단위의 고교학력평가를 통하여 하나의 잣대로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별 설립 취지 등 고교의 특성과 대학의 모집단위와의 관계, 교과성적 이외의 전형자료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학교간 차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 대입제도가 여러 번 변화되어 왔지만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에서 고교학력고사와 같은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류 전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이나 선진 여러 나라들은 고등학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세우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난 몇 년 동안 수능성적이 대입전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수능성적이 입학지도를 위한 손쉬운 지표로 활용되면서 고교교육의 파행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대학서열화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개혁의 큰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변별력 확보보다 고교 교육목표에 맞춘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더 나아가 「2002학년도 대학입학개선안」에서는 대학들이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도록 수능시험 점수를 등급제 또는 최소 자격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 여부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낮아지는 환경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행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 ① 현재의 4개 영역을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외국어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리
- ② 주관식 출제를 확대하고, 사고력 위주의 쉬운 출제방향은 유지
- ③ 변별력 제고라는 이유로 도입된 소수점 배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폐지
- ④ 총점 위주로 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표준점수를 표시하여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
- ⑤ 등급제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점수와 함께 등급(9단계)도 병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3) 대학별고사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도 대학들이 입학전형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되, 대학별고사는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는 억제하고, 다양한 논술고사와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면접·구술고사와 함께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각종 수상경력, 특별(과외)활동, 사회봉사활동, 특별한 교육경험, 자격증 등 새로운 반영 요소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가. 논술고사

‘대학별 논술고사’는 1986학년도에 처음으로 대입전형에 등장하게 되었으나 2년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본고사를 실시하게 되고 1995학년도부터 본고사 국어 과목에 논술 고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96학년도에는 영·수 과목과 병행한 논술시험(대학에 따라서는 국어 고사에 포함하여)이 실시되었고, 1997학년도부터 국·영·수 대신에 논술 고사만으로 본고사가 시행되게 되었다.

여러 대학들은 논술고사가 초·중등교육에서 단편적인

주입식, 암기식 학습으로부터 논리성과 창의성 그리고 고도의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토론식·탐구식 교육을 위한 수행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대입전형에서의 동기 부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좋은 책을 폭넓게 많이 읽게 하고,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의 습관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에 논술고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논술고사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문제들은 각 대학이 출제와 채점에 관한 전문화, 새로운 평가 기법의 도입 등 많은 개선을 이루며 극복해 나가고 있다.

나. 면접·구술 또는 실기고사

현재 추천서, 자기소개서, 봉사 및 특별활동 등의 자료들은 아직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학들이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원자의 흥미나 동기, 성격 및 발달상황 등은 확인의 차원에서라도 지원자와의 면대면 면접이 필요하며, 또한 종합적인 평가 자료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대학들은 단순한 확인을 위한 면접에서부터 폭넓은 독서 여부, 논리적 표현력, 인성, 협동자세, 의사소통 능력, 지도력, 각종 기록의 확인 등 심층적인 면접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며 점수화해 나갈 것이다.

4) 개인자료

이제까지 ‘우수학생’의 개념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좋은 학생을 의미하였으나, 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재능, 소양을 포함하는 종합적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 과정에서 학생의 교과과정의 학업성취와 더불어 선발 목적에 따라 각종 수상경력, 특별(과외)활동, 사회봉사활동, 특별한 교육경험, 자격증 등 학생의 다양한 재능

과 소양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통하여 학생의 성장 및 교육배경, 인생관, 지망 동기, 관심 학문분야, 학습목표 및 계획, 장래 포부 등을 파악하고, 추천서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에게 비춰진 정보를 얻는 등 한 개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5. 새 대입제도와 전형일정

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형일정의 자율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 대입제도에서 전형일정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하여, 대학에서 연중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형일정을 분산시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또한 여유있는 전형일정 확보로 대입전형의 다양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특차모집은 폐지하고 수시모집에는 조기모집·예약입학·추가모집 등을 모두 통합하기로 하였다. 3학년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10% 이내) 일부 학생들을 예외적으로 선발하여 1학기 말에 등록함으로써 수시모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정시모집은 현재의 4개군에서 3개군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동일 군내에서는 1개 대학만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재 정시모집의 복수지원제에 따른 미등록, 추가등록 업무의 폐해를 예방하고 추가합격 발표 대기기간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동관리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

6. 우리의 과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개인의 특성과 소양을 중요시하는 특별전형의 확대와, 신입생

선발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학생의 교육환경이 평가요소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과 전형일정이 연중 수시모집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교과성적 위주에서 다양한 비교과 요소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선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과능력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질적인 관점에서 그 평가의 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

둘째, 새 대입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티크·탐구식 학습, 수행평가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교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확보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지난 수십 년 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의 틀 때문에 한 개인의 능력을 교과목 중심의 점수만으로 평가하고, 교육목표 보다는 변별력에 더 비중을 두어왔던 비생산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아무리 올바른 제도와 방향이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작용의 소지만 있어도 포기해야 했던 경직된 틀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대학도 한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선발의 유연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은 다양한 전형자료, 선발기준 등 전형방법에 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검증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루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성공적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문화의 배경과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대학과 사회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

화적 토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입전형제도는 고등학교, 공공기관, 대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평가도구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2002학년도부터 무조건 모든 대학이 무시험전형으로 시행하는 것도 새로운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다. 대학들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학별고사 및 평가도구를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뿌리깊은 원인은 대학의 서열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학' 단위의 사고에서 '영역' 단위의 사고로 변화되어야 하며, 영역별 명문대학을 많이 형성시키는 국가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에서 교육목표와 수준 그리고 그 질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대학입학이라는 수단의 범주에

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학 자체보다는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어떠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사 회가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단계이다. **한**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Carleto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퍼지시스템학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대한수학회 이사,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Fuzzy logic and its Applications to Engineering, Information Sciences and Intelligent Systems' (Kluwer Academic, 1995)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Newton's methods and Frobenius - Dieudonn theorem in nonnormable spaces'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예)

대학별 전형계획의 주요 특징

대학명	주요내용
경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의 특성과 내용에 충실한 전형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학업적성을 반영한 여러 전형유형을 개발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 학생부 반영을 강화하고 학교장 추천제 등 각종 추천제를 환성화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
고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전형제도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인교육의 구현 전형방법 및 모집시기의 다양화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기회 제공
국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선발 기능을 종래의 교과성적 및 수능성적 우수자의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험성적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함.
동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연중무휴(야간면접도 가능)로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지역출장 면접방식도 도입함.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과 바른 인성을 갖추고, 소질 등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추천제전형 등의 입시제도 마련
서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성적이나 수능성적에 의한 학생선발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과 사회적으로 기여하였거나 배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함께 선발함. 예약입학 등 특별전형을 통하여 합격한 학생은 합격 후 예비대학에 등록하여 방학기간 등을 이용, 대학에서 예비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입학 후 우대교육과정 학생제도(Honors Program)를 통하여 해외연수, 취업 등의 특전과 그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성균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학이념(仁義禮智)에 부합하는 선발을 하고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및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함. 전형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전형시기의 다변화를 추진함.
숙명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생활기록부상의 교과성적을 적극 활용하여 모집단위별로 다양하게 수학적적자 및 특정 소질 보유자를 선발함. 아울러 사회적, 지역적인 여건에 의하여 교육기회의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에게 선발과정에서 차등적 보상 원칙을 적용함.

대학명	주요내용
송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소질과 재능이 존중되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함으로써 다원화, 전문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함. • 대학의 입학전형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함.
아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이고 독창성을 갖추며, 국제화·정보화 소양이 있는 인재를 선발함. • 신입생 전원 자유전공 입학과 성적, 인적 제한 없는 전공선택을 허용함. • 대학수학능력 적격자를 선발하고 학교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함.
연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대상 및 방법의 다양화, 특별전형의 활성화 및 연중 수시모집 실시로 대학교육에 적합한 우수 학생을 선발함. •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모든 전형자료를 균형있게 활용함.
이화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고사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후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입학제와 입학생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비례 특별전형을 실시함. • 무시험전형을 실시하고 학부제를 확대 실시함.
인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생 대상 예비대학을 운영, 성적 우수자를 수시모집으로 뽑고 입학 후 학점이수로 인정함. • 무시험전형제도를 도입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개성과 특기를 살린 인간중심 교육을 실현함.
한국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을 60%로 확대하고 특별전형, 심층면접을 활용함. •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교과 및 비교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한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무시험전형과 비교과영역 배점 확대 실시 • 특별전형 활성화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개발기회 부여 • 다양한 전형요소의 활용, 전형방법의 다양화, 수시전형의 확대 실시로 소비자 중심의 입시제도 추진